

전남 체육행사 유치 지역경제 효과

올해 청소년월드컵 등 생산유발효과 652억원 道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성장동력 삼겠다”

문화와 날씨와 맛깔스러운 음식 등을 갖춰 각종 스포츠 행사 및 동계 전지훈련 여건이 뛰어나고 평가받고 있는 전남도가 올해 활발한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11일 올해 전국 단위 체육대회와 동계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접 효과 380억원, 생산유발효과 65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한국은행의 ‘관광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이용해 숙박비와 교통비 등 외래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액을 1일 5만 9천66원으로 적용하고 생산유발효과는 1인당 소비지출액에 생산유발계수를 적용해 이같이 산출했다.

올해 전남도는 전국 단위 체육대회 등 전국 규모 국내 대회 34개를 유치해 3만 4천여 명(연인원 17만여 명)이 참여했고 청소년월드컵 등 국제대회 4개에 1만 1천여 명(연인원

14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생활체육 및 레저스포츠 대회는 20개에 2만 8천여 명(연인원 14만여 명)이 참여했고 동계 전지훈련에 860개 팀 2만여 명(연인원 27만 9천여 명)을 유치했다.

특히 전남도는 내년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와 연계해 각종 대회와 동계 전지훈련 유치 등 체육행사를 통해 502억 원의 직접효과와 1천287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문화·기후적인 배경을 활용해 전남이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벌이기로 했다.

주동식 전남도 관광문화국장은 “내년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스포츠 산업을 지역 성장의 또 다른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 국장은 “특히 겨울철 관광비수기에 동계훈련의 최적지인 전남 지역에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이리역 폭발사고’ 30주년 ‘이리역 폭발사고’ 30주년인 11일 오후 전북 익산시 익산역광장에서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리역 폭발사고는 1977년 11월 11일 전북 익산시(당시 이리시) 이리역 구내에서 다이어나이트 등 40여의 고성능 폭발물을 실은 화차가 폭발해 59명이 숨지고 1천400여 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참사였다. /연합뉴스

삼성 법무실장 전격 사퇴

이종왕씨 “비리·부정 의혹 폭로 책임 통감”

삼성그룹 이종왕 법무실장(사장급)이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리·부정 의혹 폭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했다. 삼성그룹은 이 실장이 9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취소했으며, 이어 회사에 법무실장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그룹은 김용철 변호사 측이 삼성에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협박성 편지를 보냈고 이 실장의 전격 사퇴도 이에 따른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혀 편지의 존재와 내용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 측은 이 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이학수 전략기획실장이 직접 나서 사퇴를 요청했다. 삼성그룹은 이 실장이 9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취소했으며, 이어 회사에 법무실장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그룹은 김용철 변호사 측이 삼성에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협박성 편지를 보냈고 이 실장의 전격 사퇴도 이에 따른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혀 편지의 존재와 내용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삼성그룹 법무실 소속 이수형 상무보는 11일 기자들을 만나 그룹 법무실장이었던 이종왕 법무실장이 사직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상무보는 “김 변호사의 부인이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협박성 편지를 삼성에 보냈다”며 “이 고문은 이에 응하지 말라고 제의해, 회사가 이 편지에 대응하지 않아 사건이 확대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 편지와 관련해 “내용 자체가 워낙 근거가 없고 많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과기원장 선정 연기

지난 6월 이후 5개월째 공석 중인 광주 과학기술원 신임 원장 선정이 연기됐다. 광주과기원은 “지난 9월 원장 심사를 위해 이사회(이사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를 소집했으나 참석 이사의 수가 원장 심사에 필요한 정족수(7명)에 모자라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원장 추천위원회’(위원장 임관 삼성종합기술원

이사장)가 최근 후보로 선정된 김기협 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김도한 광주과기원 생명과학과 교수, 이관행 광주과기원 기전공학과 교수 등 3명을 대상으로 신임 원장을 심사·선정할 계획이었다. 과기원 측은 “김재철 이사장이 세계박람회 관계로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이번 달 말 이후 다시 이사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r

“한국 ‘부패 망령’ 되살아난다”

FT 인터넷판 보도... 30개 선진국 중 부패순위 25위

한국 사회에서 ‘부패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이 지난 9일자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국에서 지난 40년의 산업화 시기 정·재계에서 앞서가는 가장 빠른 길은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이었지만 이런 관행을 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과거의 일이 되는 듯 했다. 실제 비주류 아웃사이더 출신인 노 대통령의 부패 척결 약속은 일정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임기말 들어 그러한 긍정적 유산은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으며 노 대통령 측근들이 개입된 일련의 금전 스캔들은 아시아 경제대국인 한국에

서 ‘여전히 돈이 말한다’(money still talks)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기업 임원이 정부 관리들을 골프장에서 접대하며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촌지를 건네는 관행이 한국에서 여전히 나타나면서 국제투명성기구의 최근 조사에서 30개 선진국 가운데 한국의 부패 순위가 25위에 그친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 삼성의 비자금 의혹, 2002년 대선자금 불법모금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 출마 선언 등 최근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각종 부패 의혹 관련 스캔들을 열거했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이공계생 2,121명 선발

2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과학기술부는 국내 152개 대학의 이공계 재학생 가운데 성적우수자 2천121명을 이공계 국가장학생으로 선발, 올 2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장학생은 매년 입학 때 선발되는 이공계 국가장학생 중 휴학 등

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각 대학의 장학생 총원 내에서 성적우수자를 추천받아 선정하는 대체 장학생으로 성적 우수 재학생이 1천877명, 저소득층 우수학생이 244명이다.

과기부는 올 상반기에도 149개 대학 1천325명을 대체장학생으로 선발해 1학기 등록금을 전액 지원했으며 2학기 대체장학생까지 합하면 올해 모두 3천446명의 이공계 성적우수 재학생이 107억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검찰 ‘삼성 비자금’ 수사착수

‘떡값 명단’ 없는 상태에서 고발인부터 소환

‘삼성 비자금 사건’ 수사와 관련, 고발인 참여연대 등이 이른바 ‘떡값 명단’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부터 일단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은 11일 “내부적으로 명단 공개나 제출 여부를 검토하기는 했지만 검찰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중정 입장대로 검찰이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는지 등을 보며 김용철 변호사나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과 논의해 공개하든지 결정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측은 대표로 고발인 조사에 응할 예정인 박 팀장은 “고발인이 검찰에 추가로 제시할 증빙 자료 등이 없으며 김용철 변호사가 검찰 조사 때 직접 제출하거나 진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르면 12일 수사 부서와 주입검사를 지정하는 등 수사팀을 구성하고 고발인의 참여연대 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관계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아람회’ 사건 연루자 국가에 165억 손해소

한국가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최대 10년간 옥살이를 했던 ‘아람회’ 사건 연루자들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16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아람회’ 사건은 박해전(52)씨 등 7명이 1980년 대초 한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불법연행돼 최대 징역10년을 선고 받은 사건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씨 등 ‘아람회’ 연루자 6명과 유족 등 37명은 “군사반란으로 장악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조직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안내광고 원고는 FAX로 접수하고 광고료는 아래 은행계좌에 입금해주시면 신속히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 직통: (062)227-9600, 220-0524, 0525
- FAX: 227-9500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설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광주은행: 001-107-228160 ◆농협: 617-01-108334
※예금주:(주)광주일보사

청산 및 채권신고 공고

당 회사는 2007년 8월 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동년 8월 8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기에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게시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12일
산학제이커리 주식회사
전남 나주시 노안면 용산리 731-1
청산인 이문규

상업지매매·교환

- 전남 신도청 정문앞
- 숙박, 위락시설 부지
- 평당 700만(용자8억)
- 140평 2필지(즉시건축가)
- 교환상담: 011-330-9365

매매 ↔ 교환

- 렌터카회사·설립10년
- 보유대수: 200여대
- 매매: 5억
- 타 물건하고 교환도 가능
- ☎: 011-642-5315

금당부동산

☎ 223-7400 ☎ 016-632-5658
(위치: 충장로 57가 4리 코너 2층)

투자

- 유주방사지, 교통근 봉래도 주거지역 2300평 7천만원
- 사출, 전월주매지, 남평권분소부근, 그민빌 1640평 주매 2억 2천
- 나주시 봉황 대신도시 부근 주택외고대지 2900평 5400만원
- 다세대부지 산수동오거리 대지 1398평 7세대허가될 2억 2천 2억 3천 3억 3천

매도·교환

- 유원동 배산 별부인 아파트 48평 내내 8억 1천, 계약금 2,500만원 남입금, 현금 5천만원 대매서 교환, 매도 3억 3천
- 곡성읍 사거리 광주에서 20분 방담원 주택지 483평 7500만원 교환가
- 금남로5가 4층건물 대지 114 29944 전세 4400만원 월 86만원 매도 3억 9천
- 담양군 주월산 힐정원가든 대지 371 29944 전세 1억 2천 2억 4천
- 전대후문 대지 120 29944 전세 8600만원 월 280 매도 5억 4천

김정가이하

- 유원동 농주면 소재지 최고상권 대지 299 평 412 29944 전세 10억 이상 매도 7
- 충장로5가 3층건물 대지 35 29944 전세 3억 9천 매도 3억 3천
- 양동 삼가·목욕탕·여관 대지 139 29944 전세 459 29944 전세 280 매도 5억 4천

구합니다

부동산의 매매·교환·개발·건축 등의 각종 물건을 구하며 신속히 처리해드립니다.

함께 일합니다

함께 하실 분을 모십니다. 혼자서는 미약하지만 함께하면 무엇이든 못 이루겠습니까. 손잡고 함께할 분을 모시오니 찾아주시면 합니다.

- 금남로 5가 우리은행과 인터넷사 사이

연락처

062)236-0764
010-6889-7100

종가집 설령탕

확장이전

그동안 성원에 감사드리며 종가집의 정성을 가득담아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새로운 분위기와 함께 최선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메뉴] 설령탕, 도가니탕, 꼬리곰탕, 쟁반수육, 도가니전골, 꼬리찜

미즈피아
신부인과

이연안과

롯데마트

(현)종가집 설령탕

예술의전당

종가집 설령탕 | (이연안과 및 예술의전당 및) | 광주 서구 차평동 1261-2 (상무지구) | 예약전화 062)374-0015